



윤덕여 감독(오른쪽 끝)을 비롯한 여자축구대표팀이 중국 우한에서 벌어진 2015동아시아인합을 준우승으로 마치고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성원해준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스완지시티 기성용(오른쪽)이 9일(한국시간) 런던 스텐포드브릿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첼시와의 원정경기 도중 월리앙과 공중 볼을 다투고 있다. 런던 | 신화뉴스

통신원 리포트

기성용, 개막전 부상 교체 몽크 감독 “빨리 돌아오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5~2016시즌이 개막하면서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9일(한국시간) 런던 스텐포드브릿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 스완지시티의 1라운드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다. 선발출전한 스완지시티 기성용(26)은 전반 41분 상대 진영 중앙에서 돌파를 시도하다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을 느껴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곧바로 잭 코크와 교체됐다. 스완지시티는 1-2로 끌려갔지만 후반 10분 바페티비 고미스의 페널티킥 골로 원정에서 값진 승점 1을 챙겼다.

개리 몽크(36) 스완지시티 감독은 “첼시는 굉장히 강한 팀이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상대로 더 철저히 준비했다”며 “오늘 우리의 진정한 팀워크를 보여준 것 같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여줬다. 스완지시티가 결코 약팀이 아니라는 것을 개막전에서 증명하고 싶었는데 선수들이 잘 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몽크 감독은 이어 부상을 입은 기성용에 대해 언급하며 빠른 복귀를 기원했다. 그는 “경미한 햄스트링 부상 같다. 정밀검사를 해야겠지만 금방 다시 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기성용의 허벅지) 원래 문제가 있던 부위는 아니고 경기 중 뛰다가 다쳤다. 스완지로 돌아가서 철저히 검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심하지 않으면 다음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복귀시키지 않을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기성용은 몽크 감독의 전술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몽크 감독은 지난 시즌 기성용이 공격에 무게를 두고 플레이하게 해 팀을 상위권으로 도약시켰다. 이번 개막전에선 기성용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시켜 첼시의 공격을 봉쇄하도록 했다. 기성용에게 두터운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기성용의 부상이 심하면 몽크 감독의 시즌 구상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성용의 빠른 복귀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BBC 해설가와 축구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19명이 첼시를 올 시즌 우승팀으로 꼽았다. 그러나 첼시는 홈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다른 우승 후보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시티가 전력을 대거 보강한 상황에서 첼시가 리그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이제는 리우로...태극낭자들 희망을 쏜다

사커 토막

동아시아인합 준우승...중국·일본 격파 자신감
올림픽 첫 본선 도전 세밀함·체력 보완 속제

종로 휘슬이 울리자 태극낭자들은 그라운드에 탈썩 주저앉았다. 일부는 드러누워 눈물을 쏟았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여자축구대표팀은 8일 우한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동아시아인합(1~9일·중국 우한) 북한과의 최종전에서 0-2로 패해 2승 1패, 승점 6으로 2위를 차지했다. 준우승 상금 4만5000달러(약 5040만원)를 받았다. 3전승(승점 9)의 북한(상금 7만달러)이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북한 라온심은 3골로 득점왕, 위정심은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었고, 한국 김정미(현대제철)는 골키퍼(GK)상을 수상했다.

북한과의 상대전적 1승1무14패. 2005년 8월 이 대회에서 1-0으로 이긴 이후 9연패다.

2015동아시아인합 여자부 최종 순위

순위	국가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차
1	북한	9	3	0	0	9	4	5
2	한국	6	2	0	1	3	3	0
3	일본	3	1	0	2	5	6	-1
4	중국	0	0	0	3	2	6	-4

그러나 아주 아프지만은 않았다. 상처 속에서 분명한 성장을 확인했다. 한국여자축구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청신호를 켜다.

●북한만 못 남었다!

북한여자축구는 국제축구연맹(FIFA) 정계로 최근 국제대회에 나서지 못했지만 세계적 강호로 인정받는다. 6월 2015캐나다여자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오른 한국여자축구는 아직 북한에 밀린다. 그러나 희망적 측면이 많았다.

태극낭자들은 중국과 일본을 모두 꺾었다. 1-0으로 이긴 중국전(1일)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버티는 힘을, 2-1 역전승을 거둔 일본전(4일)에선 포기하지 않으면 열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각각 얻었다. 북한에 영패를 당했지만 강호들과의 연이은 격돌로 강팀에 대한 면역력을 한층 높였다.

물론 숙제도 있다. 세밀함과 체력이다. 윤덕여 감독은 “패스의 질적인 차이가 북한과 우리의 격차를 만든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패스의 질도 떨어진다”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또 다른 시작, 올림픽을 향해!

윤덕여 감독은 “어떤 대회를 마치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고 말했다. 맞는 얘기다. 월드컵에서 큰 역사를 일군 한국여자축구의 다음 목표는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이다. 내년 2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예선에서 올림픽 티켓 2장의 주인이 가려진다. 일본, 중국, 북한 등이 모두 나서는 데다 호주도

가세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다행히 세대교체가 무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윤덕여호’에서 주축을 이룬 이들은 1988년생이다. 수비수 김도연(현대제철)~이은미(이천대교), 미드필더 권하늘(부산상무)~조소현~전가을(이상 현대제철) 등이다. 여기에 후배들이 가세했다. 1990년생 골잡이 정설빈(현대제철), 1991년생 공격형 미드필더 이민아(현대제철), 1994년생 윙 포워드 이금민(서울시청), 등은 차세대 기동이다. 소속팀 일정과 컨디션 난조로 이번 대회에 불참한 지소연(첼시 레이디스), 박은선과 중국전에서 무릎을 다쳐 이탈한 심서연(이상 이천대교) 등 핵심 자원들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다.

정설빈은 “골대를 맞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아 북한에 졌다. 많이 밀리지 않았다”, 이민아는 “고유의 플레이와 전술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 우리도 기량이 계속 향상하고 있다”며 올림픽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다.

우한(중국)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이청용, 개막전 결장...주전 경쟁 서막인가

노리치전 명단 제외...편천·자하 맹활약

이청용(27·크리스털 팰리스)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5~2016시즌 개막전에 나서지 못했다. 부상은 없었지만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만만치 않은 주전 경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엿보인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8일(한국시간) 캐로우

로드에서 벌어진 노리치시티와의 원정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그러나 이청용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원정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경기 직전 출전선수명단에서 제외돼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다. 팀은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이청용으로서 유쾌할 수만은 없었다.

이청용은 지난달 25일 슈퍼스포츠 유나이

티드(남아프리카공화국)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골까지 넣으며 주전을 제치는 듯했다. 그러나 열린 파두 크리스털 팰리스 감독은 노리치시티전에서 좌우 측면공격수로 제이슨 편천(29)과 윌프레드 자하(23)를 내세웠다. 세도 스트라이커로는 조던 머치(23·이상 잉글랜드)가 선택 받았다.

자하는 전반 39분 편천의 패스를 받아 선제 골이자 올 시즌 팀의 첫 골을 터트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편천과 머치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파두 감독의 신뢰에 보답했다. 이청

용에게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파두 감독은 경기 후 “편천은 오늘 우리 팀 최고의 선수였다. 자하의 경기력도 훌륭했지만 편천이 최고였다”고 찬사를 보냈다.

만만치 않은 경쟁자의 등장으로 이청용은 주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청용이 가벼운 부상으로 개막전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일부의 해석이 나왔지만, 그의 몸 상태는 정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진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육장갈비... 차별화가 대박으로!!

(신개념 서서갈비 전문점) "맛있는 고기도 육장에 찍어먹으면 더욱 맛있다"



주방걱정무!

소육장갈비



수제돼지갈비

성공스토리/대전1호점



많은 자영업자들이 위기 탈출의 기회를 업종변경을 통해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일제강점기 폐업신고를 해 최소한의 자금이라고 확보하려고 했지만, 최근에는 업종변경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업종변경 이후 매출 부진을 극복,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프랜차이즈 숯불구이 서서갈비전문점 '육장갈비 대전1호점(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524번지 / 042-541-3232)'을 운영 중인 문성구

점주 역시 업종변경 창업을 통해 성공한 케이스다. 과거 문성구 점주는 동일 업종인 고깃집을 운영했지만, 동네 분위기와 맞지 않고 본인도 운영에 부담감을 느꼈었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 매출 부진이 거듭됐다.

“처음에 고깃집으로 포부있게 시작했지만, 상권에 적합하지 않는 컨셉이라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가족 단위 고객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업종변경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육장갈비’를 알게 됐고, 상권에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큰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업종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메뉴 시식을 했는데, 맛과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현재 ‘육장갈비 대전1호점’은 업종변경 창업 후 2.5배 이상 매출이 향상됐다고 문성구 점주는 말했다. 뛰어난 품질과 가격 대비 푸짐한 양, 출고와 적으로 나뉜 깔끔한 인테리어 등의 성공요소가 단체 단위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성구 점주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육장갈비 대전1호점’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장 운영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면서, 본사와도 열심히 발을 맞춰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가맹점이 되겠다고 얘기했다.

소갈비 + 수제돼지갈비 만남 = 대박집

창업문의 1588-9280

창업대출 최대1억까지가능
(단,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